

기 기 기 김 김
이 이 이 비 비 버 뷁 뷁 뷁

Kim Beom, 1963-
金範

김범은 기본적으로 '이미지'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작가는 오랫동안 '형상'에 얽힌 인간의 심리에 관심을 가지고, 형상과 실물의 심리적 동일성에 관한 '이미지'의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 '이미지'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미지뿐 아니라 가정과 연상을 통해 존재하거나 읽힐 법한 이미지를 포함하는데, 이는 '재현'의 의미를 짚게 한다. 김범은 구체적인 대상을 묘사하는 재현 대신 사람의 '경험'과 '기억'을 통해 다르거나 새로운 '실재'를 바라보도록 유도한다. 즉 '현실'과 '이미지'의 관계 탐구는 작가가 차츰 이미지의 '실재성'을 찾게 되는 질문으로, 나아가 이를 '인지'라는 영역과 결부해 '경험'과 '기억'의 범위까지 확대한다.

김범은 회화를 비롯해 드로잉, 오브제, 조각, 설치, 책, 미디어, 웹 등 여러 유형의 매체를 다룬다. 작가가 이처럼 다양한 양태로 작품을 표현하는 까닭은 작품의 각기 다른 내용에 맞춰 그에 적합한 '용기', 이른바 물리적 몸체를 찾고자 해 왔기 때문이다. 그의 시각적 언어는 소박한 표현법으로 다소 장난스럽게 관습을 뒤집는 진지한 유머와 부조리한 제안으로 특징지어지며, '의도된 허술함' 또한 자리한다. 이미지를 거부하는 회화, 특정 상황을 강요하는 지시문, 인간 행세를 하는 도구 등과 같이 현실과 허구를 넘나든다. 김범의 작업은 인간의 시각이 기본적으로 의심되는 세계를 다루면서 현실의 부조리와 불확실성을 시니컬하게 비춘다.

김범

1963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학사/석사(1986/1988)와 뉴욕 스크올브비주얼아트 석사(1991)를 마쳤다. 『바위가 되는 법』(리움미술관, 한국, 2023), 『콩고에서 온 신문지로 만들어진 컵 속에 담긴 갠지스강의 물』(쿤스트할 오르후스, 덴마크, 2019), 『무작위 인생』(STPI, 싱가포르, 2017), 『김범: 뱅쿠버 현대미술관, 캐나다, 2015), 『김범: 도치의 학교』(헤이워드 갤러리, 영국, 2012), 『김범: 자신이 도구에 불과하다고 배우는 사물들』(클리블랜드 미술관, 미국, 2010), 『김범』(아트선재센터, 서울, 2010) 등의 개인전을 개최했다.

1987년 이래로 김범은 제13회/제1회 타이베이 비엔날레(2023/1998), 제12회 샤프자비엔날레(2015), 제9회/제4회/제2회 광주비엔날레(2012/2002/1997), 제6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2010), 제51회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2005), 제8회 이스탄불 비엔날레(2003) 등과 더불어 국내외 수많은 단체전에서 작품을 선보였다. 에르메스 미술상(에르메스 코리아, 한국, 2001), 석남미술상(석남미술문화재단, 한국, 1995) 등을 수상했으며, STPI(싱가포르, 2023/2016) 레지던시에 참여했다. 김범의 작업은 뉴욕현대미술관, 클리블랜드 미술관, 휴스턴 미술관, M+ 홍콩,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김범, 「잘 구운 큰 통닭」, 1991, 캔버스에 수채, 53.5 × 68.5cm.



김범, 「무제」, 1991, 캔버스에 아크릴릭, 66 × 101.5cm.

김범

총괄 기획

이설희

책임 연구

이설희, 야콥 파브리시우스

글

이설희, 야콥 파브리시우스, 기혜경, 장지한

인터뷰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

아카이브

이지은

번역

이예원, 양다솜

교정 교열

김해리(국문), 세라 쿨글리(영문)

이미지 디지털라이징

홍승범

기록 정리

이나정

편집

김누리연

디자인

전용완

출판

워크룸 프레스

후원

쿤스트할 오르후스, 아트 허브 코펜하겐



이 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2-2023
「작가 조사-연구-비평」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습니다.